오키나와 평화기념당

THE OKINAWA PEACE HALL

●주요 행사

평화의 주춧돌 각명자 추도 청명제（4월）

어린이 축제（5월5월）

오키나와 전 전몰자 추도식 전야제（6월22일）

마부니·불과 종의 축제（12월31일~1월1일）

●정기관광버스(남부전 터 코스) 연중 매일 운행〈오키나와버스〉

■관람료 （개당 시간 ※연중무휴 오전9시 ~ 오후5시）

종별 / 구분	개인	단체 20명 이상
성인	450엔	350엔
중·고등학생	350엔	250엔
초등학생 이하	무료	

공익재단법인 오키나와협회

오키나와 평화기념당

관리사무소 (우)901-0333 오키나와현 이토만시 마부니 448-2
TEL (098) 997-3011 FAX (098) 997-2678

사무국 (우)112-0004 도쿄도 분쿄구 고라쿠 1-2-9 에이제트큐브 빌딩 5F
TEL (03) 5803-2341 FAX (03) 5803-2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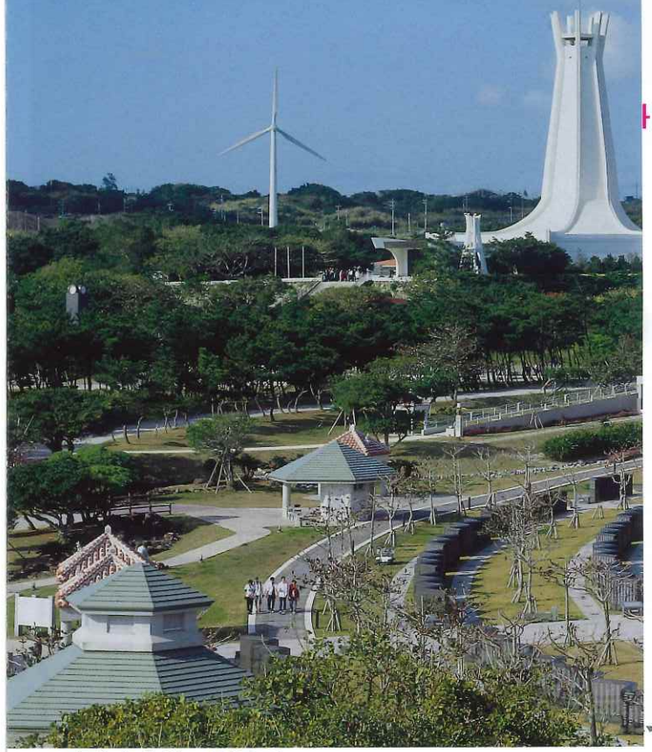
홈페이지 URL http://homepage2.nifty.com/kinendo/

세계평화의 전당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마지막 격전장이 된 오키나와는 노인과 아이, 부녀자까지 휘말려 군인과 민간인 총 20여만 명에 달하는 귀중한 인명을 잃었습니다. 비참한 전쟁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아니 된다 — 오키나와 현민의 이 비통한 염원을 담아 오키나와 평화기념당은 1978년 10월 1일에 개당되었습니다.
전쟁의 무익함, 평화의 존귀함. 그 증거의 땅 마부니의 언덕에 우뚝 솟은 기념당. 정칠면체 각뿔 모양의 당우는 일곱 개의 바다와 합장하는 모양을 표현하였고 모든 인종과 국가, 사상과 종교를 초월하여 세계에 평화를 호소하는 웅장한 기념물입니다.

- ●연건축면적 : 1,571㎡
- ●높이 : 45m
-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평화의 주춧돌 각명자 명부가 태내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초석> 맞은편

평화기념당 맞은편에는 종전 50주년을 기념하여 오키나와현이 세운 <평화의 초석>이 있습니다. 국적, 군인, 비군인을 불문하고 오키나와전에서 사망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이 기념비와 하나가 되어 마부니 땅에서 평화의 존귀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화 기념 모뉴멘트

기념당 정면 입구 옆에는 개당 당시 전국에서 공모한 '엽서로 쓴 당신의 평화론' 의 입선작 3점을 새긴 모뉴멘트가 설치되어 오가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의의를 묻고 있습니다.

평화학습 · 위령행사의 장소

8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당내는 수학여행으로 방문한 고등학생들이 평화학습을 하거나 각종 단체의 위령행사가 활발히 실시됩니다. 이러한 모임에는 연설이나 기록영화를 상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평화기념상

○높이 12m ○폭 약 8m

"미와 평화의 전당" 오키나와 평화기념당

오키나와 평화기념당은 오키나와 현민을 비롯해 전 국민의 평화 염원과 전몰자 추도의 상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당내에는 오키나와 현내 각 지역 및 학생들의 모금 활동의 지원을 받아 오키나와가 낳은 걸출한 예술가 야마다 신잔 씨가 18여년의 세월에 걸쳐 원형을 제작한 오키나와 평화기념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니시무라 게이유 화백이 평화에 대한 마음을 담아 제작한 회화 역<전쟁과 평화>(20점 연작, 각 300호)가 당내 벽면을 장식하고 있으며, 부지 내에는 조각가 사토 추료 씨가 제작한 청동제 <소년>의 상을 비롯해 기념당의 이념에 뜻을 같이한 일본 화단의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화가가 보내온 대작을 전시하는 미술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 평화기념당은 " 미와 평화의 전당 " 으로서 오키나와현이 건설한 <평화의 초석>과 하나가 되어 마부니 땅에서 세계를 향해 평화의 존귀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종

1978년 개당 당시 오키나와 평화기념당의 이념에 뜻을 같이한 라이온스클럽 국제협회 337복합 지구가 기증하였습니다. 세계의 항구 평화를 기원하여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 등이 개최될 때 타종합니다.

' 전쟁으로 사라져 간 영혼을 달래고 인류의 유구한 평화를 다짐하며 이 평화의 종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사방으로 울려 퍼진다. 이곳 마부니의 언덕에서 만인의 기도를 담아 ' 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추라 나비원

일본에서 제일 큰 나비인 이데아 왕나비를 사육하는 나비원입니다. 신비한 황금 번데기에서 우화하는 이 나비는 날개를 펼치면 13센티미터에 달합니다. 그리스어로 나비를 프시케(영혼)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자란 프시케는 전몰자를 추도하고 세계 평화의 실현을 기원하는 평화기념상의 사자가 되어 방문자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말없이 생명의 존귀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화기념상과 야마다 신잔 화백

오키나와 평화기념당에 안치된 오키나와 평화기념상은 오키나와 출신의 위대한 예술가 야마다 신잔 화백(1885~1977)이 모든 전몰자의 추도와 세계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오키나와 현민의 마음을 한 몸에 짊어지고 만년의 생애를 다 바쳐 제작하였습니다. 높이 약 12미터, 폭 약 8미터로, 인간이 기도하는 모습을 상징한 좌상입니다. 종교와 사상, 정치와 인종 또는 국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전몰자의 위령과 평화의 한 점에 힘을 합쳐 나가자는 뜻을 10개의 손가락을 모아 합장하는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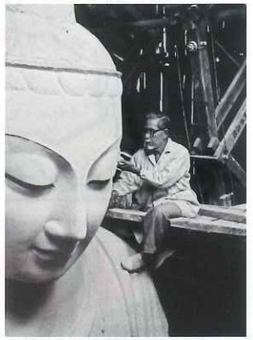
특히 이 상은 오키나와의 풍토가 낳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전통 옻공예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류큐 칠기는 옻에 분말 물감(안료)을 섞어 츠이킨이라는 옻반죽을 만들고, 그 츠이킨으로 칠기를 장식하는 독특한 기술이 있습니다. 야마다 화백은 본래 평면적으로 사용되던 츠이킨 기법을 입체적인 조각에 활용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이 평화기념상을 츠이킨, 즉 옻 그 자체로 만들어냈습니다. 츠이킨은 기후 조건에 매우 민감하고, 오키나와 이외의 토지에서 이러한 상을 완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된 옻의 양은 3.5톤으로 중국에서 수입되었습니다.

동상의 머리 위에는 전몰자의 영혼이 머무는 우주 공간을 상징하는 별들이 빛나고 있으며, 7개의 바다를 나타내는 7개의 기둥이 동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한 동상의 받침대 지하에는 세계 각지에서 기증된 평화의 기원을 담은 영석이 봉납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마다 화백은 1906년 도쿄미술학교(지금의 도쿄예술대학)에 입학, 조각과 일본화를 전공하였습니다. 졸업 후 1910년 청나라의 북경예도학당 강사로 부임하여 약 2년간 중국에 머물렀습니다. 귀국 후 중앙 미술계의 제일선에서 활약하였고 일본 예술계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대표작은 메이지 신궁 기념회화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940년 오키나와로 귀향하여 오키나와전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장남과 셋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번 다시 전쟁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1957년에 이 상의 제작을 발표했을 때, 모든 현민이 찬성하였고 특히 현내의 초 · 중 · 고등학생도 갹금하여 응원하였습니다.

야마다 화백은 72세의 고령임에도 아랑곳없이 혼자 힘으로 이 큰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원형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90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만 18년의 원형 제작 과정에서 두 번의 전락 사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이를 극복하였습니다. 이 상에는 평화에 대한 화백의 집념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야마다 신잔 화백

군성

무한히 퍼져나가는 우주 공간 속에 신비한 상을 표현하기 위해, 그 성상의 머리 위에 다이아몬드 커팅한 크리스탈 유리가 아름다운 별 하늘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평화기념상 찬가

(도쿠치 마사노부 작사 · 작곡)

모든 사람의 소망 천지도 나부낀다
지금 모두가 고향에 다툼을 버려라
보라 흰구름의 끝 거룩한 하늘에
오키나와의 바람 청명하게 노래한다

세계 각국의 영석

야마다 신잔 화백은 평화에 대한 소망이 인류 공통의 비원이라는 신념에서 평화기념상을 정신적으로 전 세계적 기반 위에 건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써 일본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평화의 기도를 담아 보내온 영석이 평화기념상의 기저가 되어 받침대 지하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연작 회화 <전쟁과 평화>

당내의 벽면을 장식하는 20점의 연작 회화는 니시무라 게이유 화백이 제작하였습니다. 1978년에 처음 오키나와를 방문한 니시무라 화백은 오키나와가 안고 있는 어두운 과거와, 그와는 대조적으로 현재에 전해지는 훌륭한 문화, 아름다운 자연,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접하고 연작 회화를 제작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의 세월을 들여 완성한 이 회화는 모두 오키나와를 소재로 그려졌으며 평화를 기원하는 오키나와 현민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 20점 연작 (각 300호, 사진은 제1작 <오키나와에 뜨거운 마음을>)

미술관(당내전실 · 미술전시실)

오키나와 평화기념당의 이념에 뜻을 같이한 일본 양화단의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화가가 기증한 대작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981년 오키나와현 최초의 미술관(개관 당시)으로 개관되었습니다. " 미와 평화의 전당 " 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함과 동시에 오키나와현의 예술 문화 진흥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전시 테마에 따라 회화를 교체합니다.

소장 작가

아키모토 기요히로, 아시토미 초슈, 아시미네 가네마사, 아베 히데오, 아라이 야스오, 아라키 히사시, 이시미네 덴로, 이나가키 히사하루, 이노우에 게이시, 이구치 유타카, 이마이 로진, 오미네 세이칸, 오미네 세이빈, 가도 히로시, 가라시마 잇세이, 기타무라 이와오, 고토 가즈오, 구바 도요, 구마가이 겐시로, 고사카 쇼지, 고다마 유키오, 고마츠 아키라, 사이토 마사이치, 사카모토 슈지, 사마다 도시오, 시바하라 유키, 스도 하츠오, 다카세 사부로, 다카다 쇼지로, 다카후지 요시오, 다마나하 쇼키치, 친제이 나오히데, 데라이 주조, 도미야 가즈아키, 나카하타 소진, 나가요시 데루오, 노미야마 교지, 하나와 겐조, 하마구치 미와, 하라 료지, 히구치 요시카즈, 히다카 고요, 후지모토 도이치료, 마츠오 요메이, 미우라 슌스케, 미야기 겐세이, 미야자키 만페이, 무라타 쇼조, 모리사키 고우, 야마자키 스이쇼, 야마자토 에이키치, 야마토 슈지, 야마모토 아키, 요기 다츠지, 요코야마 신세이, 요시무라 메이호, 요미야마 도모스케, 와타나베 게이이치, 와타나베 요시후미, 야마모토 게이이치, 아다니야 마사요시, 다치카와 히로미

<소년>의 상

오키나와전에서 사라져 간 전도 유망한 소년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평화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 오키나와 복귀 10주년을 계기로 전국 어린이들의 협조를 받아 설치되었습니다.

· 청동제 높이 1.62m
· 사토 추료 씨 제작